

또 다시 미-이란 충돌

삼성선물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재개 및 중동발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4 이상 급등해 WTI는 5.2% 오른 \$90.22로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 전일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내 민간 유조선 및 미군을 향한 공격에 대응해 이란 혁명수비대 표적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을 감행. 이란 역시 석유 수출 전면 차단을 경고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 타격 예고와 신규 제재 방침이 대립하면서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장기화 불안이 극에 달함.

또 다른 오폭?

미국이 이란 남부 지역 공습을 재개한 가운데, 결혼식이 열리던 주택이 공격받아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숨짐. 전일 미군 공격으로 결혼식장에 있던 하객 4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을 입음. 이와 더불어 미군은 미 동부시간 정오에 이란 혁명수비대 표적에 대한 대대적인 타격을 시작. 반다르아바스와 게숨섬, 아살루에 등 남부 주요 지역과 민간 공항, 항만시설등을 타격.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동내 미군 기지와 시설을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반격시 더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 연이어 타격

사우디아라비아 터미널에서 각각 200만 배럴의 원유를 선적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사우디 국적 시드르호 및 리베리아 국적 프로스페리티호-장금상선 소유 추정)이 오만 인근 해역에서 수 분 간격으로 정체불명의 발사체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 선원들은 전원 무사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이후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해협 봉쇄로 핵심 수송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오만 회랑의 안보 위험을 크게 격상시켰음. 카타르와 오만 등 중재국들의 해협 개방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타격을 경고하고 이란 언론이 사우디 유조선 억류 소식을 전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세를 다시 자극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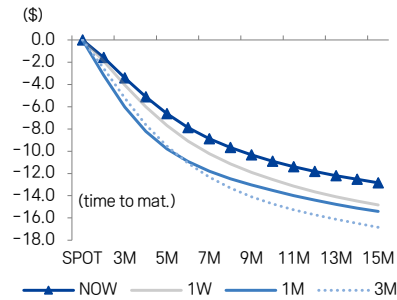
러시아 생산과 수출 전망 하향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여파 및 지속적인 드론의 정유시설 공격에 따른 생산 차질로 인해 2026년 원유 생산량 전망치를 기존 대비 하향 조정한 4억 9,420만 톤(일산 약 988만 배럴)으로 수정하였으며, 이는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임. 정유소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내수 시장의 가솔린 및 디젤 부족 사태를 막고자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올해 석유 제품 수출량은 전년(1억 2,580만 톤) 대비 급감한 9,85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제되지 않은 원유는 중국과 인도 등으로 우회 공급되며 올해 수출량이 2억 4,470만 톤으로 한시적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생산 기반 위축으로 인해 2027년(5억 톤)과 2028~2029년(각 5억 500만 톤)의 생산량이 모두 2025년(5억 1,140만 톤) 수준을 지속해서 밑돌고 2028년 이후 원유 수출량 역시 2억 1,660만 톤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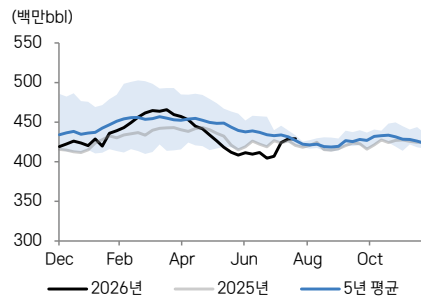
Energy

품목	월물	단위	시가	고가	저가	정산가	변동		거래량	미결제약정
							\$	%		
WTI Crude Oil	Oct	\$/배럴	86.31	90.97	86.13	90.22	△ 4.46	+5.2%	672031	1895459
Gasoline	Oct	\$/갤런	3.112	3.165	3.079	3.135	△ 0.058	+1.9%	130544	344041
ICE Brent Crude Oil	Nov	\$/배럴	90.81	95.45	90.7	94.65	△ 4.16	+4.6%	1305713	2682534
Natural Gas	Oct	\$/MMBtu	2.931	2.955	2.851	2.904	▼ 0.031	-1.1%	417206	1798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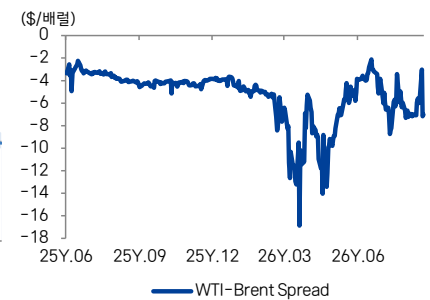
WTI Forward Curve



미국 주간 원유 재고 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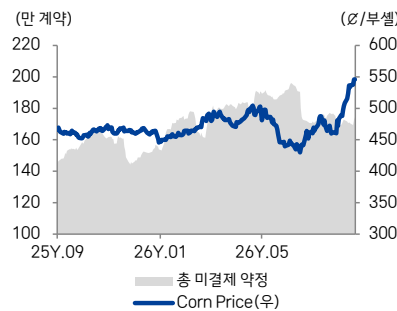
WTI-Brent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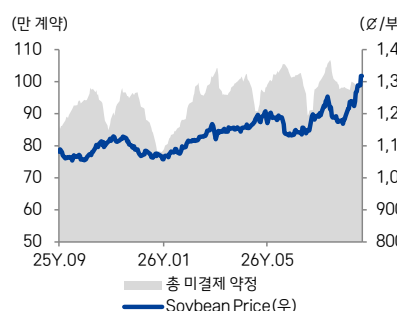
Agriculture

품목	월물	단위	시가	고가	저가	정산가	변동		거래량	미결제약정
							Cent	%		
CBT Corn	Dec	¢/bu	537.25	548	534.25	546	△ 8.25	+1.5%	476,903	1,744,135
CBT Soybean	Nov	¢/bu	1291.25	1320.5	1290	1317.75	△ 29.75	+2.3%	234,601	1,002,672
CBT Wheat	Dec	¢/bu	774.75	792.25	767	782.5	△ 8.50	+1.1%	202,061	457,765
ICE Coffee	Dec	¢/bu	313.45	315.55	299.2	309.45	▼ 2.05	-0.7%	35,242	154,309
ICE Sugar	Oct	¢/bu	17.81	18.41	17.67	18.36	△ 0.55	+3.1%	277,302	1,281,215
ICE Cotton	Dec	¢/bu	92.99	93.14	90.91	91.55	▼ 1.59	-1.7%	61,024	382,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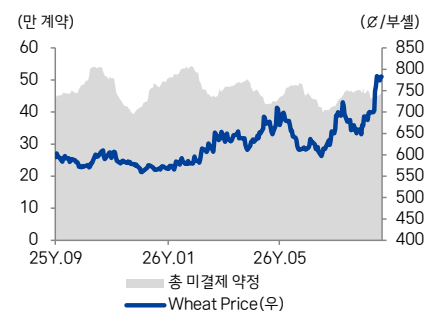
C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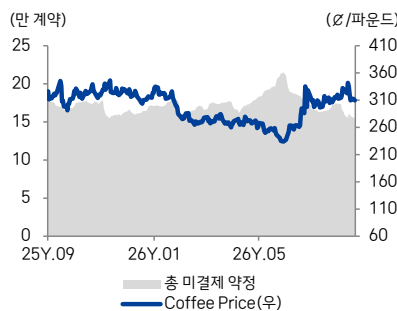
Soyb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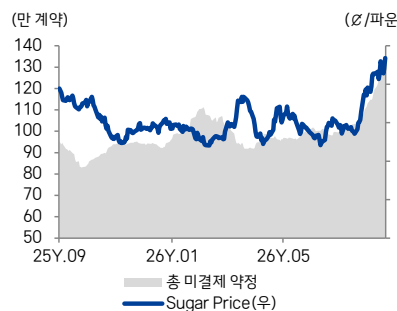
Wh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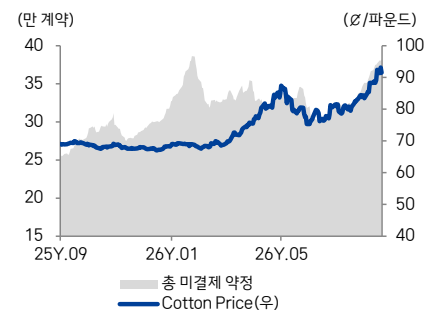
Coffee



Sug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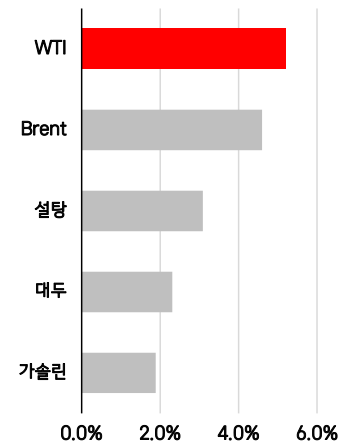
Co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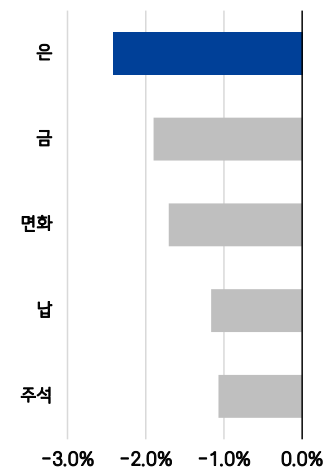
원자재 히트맵

	일간	주간	월간	월초대비	3개월	6개월	1년	연초대비
구리	-0.1%	-0.5%	+3.5%	-0.1%	+3.3%	+10.6%	+44.4%	+14.9%
알루미늄	+1.2%	+1.3%	+3.0%	+1.2%	-11.4%	-0.5%	+25.7%	+9.5%
니켈	+1.0%	+0.9%	+7.7%	+1.0%	+8.7%	+21.6%	+38.5%	+25.9%
아연	+0.7%	+0.7%	+2.2%	+0.7%	-5.2%	-1.2%	-4.2%	-4.6%
납	-1.2%	-2.2%	-3.4%	-1.2%	-11.7%	-3.2%	+7.9%	+0.1%
주석	-1.1%	-2.2%	-1.1%	-1.1%	-4.8%	+9.5%	+56.3%	+34.7%
금	-1.9%	-6.3%	+7.0%	-2.3%	-3.0%	-15.9%	+20.0%	-2.2%
은	-2.4%	-5.9%	+11.9%	-3.4%	-12.9%	-22.3%	+53.7%	-10.3%
WTI	+5.2%	+9.5%	+10.7%	+5.9%	+4.3%	+30.7%	+45.5%	+58.4%
가솔린	+1.9%	+7.0%	+10.6%	+2.6%	+13.6%	+45.5%	+68.8%	+82.0%
Brent	+4.6%	+8.5%	+11.9%	+4.6%	+4.9%	+30.2%	+42.8%	+57.3%
NG	-1.1%	+2.9%	+4.2%	+0.7%	-11.0%	-19.8%	-26.6%	-22.8%
옥수수	+1.5%	+4.3%	+17.7%	+1.5%	+18.8%	+14.2%	+18.9%	+18.6%
대두	+2.3%	+6.5%	+11.0%	+2.3%	+12.9%	+15.9%	+21.7%	+23.8%
밀	+1.1%	+11.3%	+19.0%	+1.1%	+26.1%	+25.9%	+30.1%	+38.6%
커피	-0.7%	-7.8%	-1.7%	-0.7%	+28.7%	+13.0%	-5.2%	-1.6%
설탕	+3.1%	+6.3%	+25.2%	+3.1%	+24.5%	+29.7%	+9.4%	+22.2%
면화	-1.7%	+3.6%	+11.9%	-1.7%	+13.7%	+33.2%	+32.6%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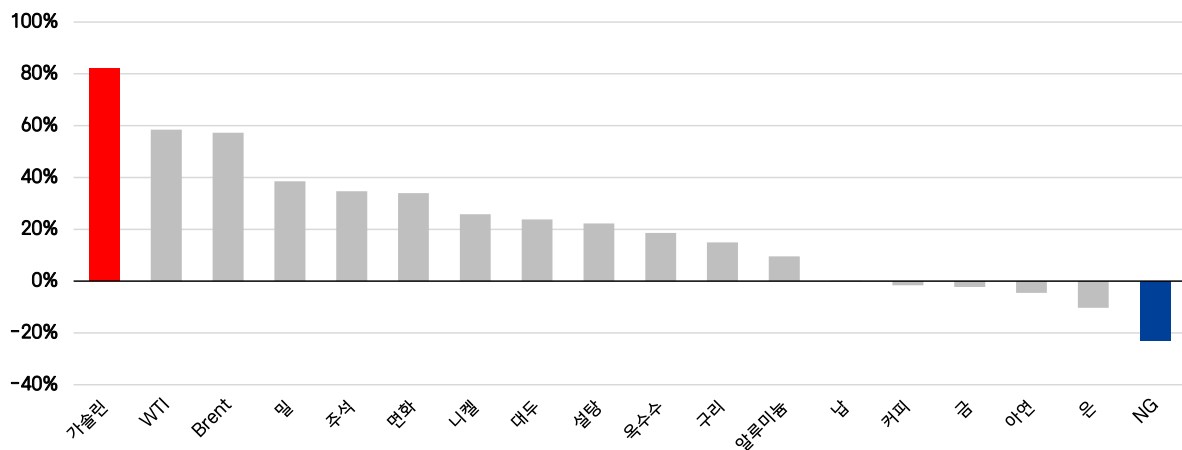
일간 상승률 Top 5



일간 하락률 Top 5



연초대비 상승률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파생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자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